

“고양이 학교? 편집자 학교!”



원선화_문학동네어린이 편집부

Daum 사이트에 들어가 카페 검색란에 고양이 학교를 입력하면 ‘고양이 학교를 사랑하시는 분들 모두 대환영!!!’ 이라는 소개글과 더불어 고양이 학교라는 카페 이름(<http://cafe.daum.net/catsschool>)이 목록에 뜬다. ‘고양이 학교’를 사랑하는 골수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이 카페를 연 주인장의 정체가 궁금하여 알아보니 초등학생일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40대 초반의 나이 지긋한 중년 여성이었다. 출판사를 대신해 돈 안 드는 마케팅을 해주는 셈이니 감사한 마음보다 ‘고양이 학교’에 쏟아 부은

시간과 땀에 대한 결실이란 생각에 눈물겹기(?)까지 했다. 문학동네어린이 편집자들에게 있어서 《고양이 학교》는 ‘고양이 학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제대로 된 편집자로 거듭나기 위한 ‘편집자 학교’나 다름없었다.

《고양이 학교》의 출간은 아동도서 출판에 뛰어들지 얼마 되지 않은 문학동네에 있어서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

는 전환점이었다. 기존 출판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아동도서 시장에서, ‘문학동네어린이’라는 신생 브랜드가 입지를 확고히 하고 바람직한 어린이책 출판사로 새로 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도 아니면 모. 《고양이 학교》는 출간되자마자 아동 문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상반되고 엇갈린 평가 속에서 우리 팬타지 동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떤 식으로든 제시하고 있고, 새 가능성을 열어보인 작품이라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동양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팬타지 세계의 구축, 전형적인 생활동화의 흥수 속에서 맛보는 달콤한 환상, 아동문학계를 슬쩍 뒤흔들어보는 것, 그것이 문학동네어린이의 편집자들이 목표로 한 것이었으니 제몫은 해낸 셈이다.

작가의 실제 체험(죽을 때가 된 고양이가 갑자기 집을 나가 자취를 감춰 버린 뒤 아이가 우체통에 고양이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발단이 된 이 이야기는 초고가 완성되었던 당시에는 5권의 시리즈로 묶을 만큼 긴 글은 아니었다.

그러나 두세 권의 분량으로 담아내기에는 《고양이 학교》가 안고 있는 긴박성과 주제의 무게가 너무 버겁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작가는 동양 신화의 세계관에 기대어서 구 신화의 이미지를 차용, 변형시켜 내러티브를 재생산했고, 신화적 모티프들로 《고양이 학교》를 채워나갔으며 급기야 우리의 첫 연작 팬타지 동화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기존 질서를 뒤엎는 전복의 즐거움, 《고양이 학교》라는 팬타지 동화를 통해 이루어낸 셈이다. 등장 인물들은 한번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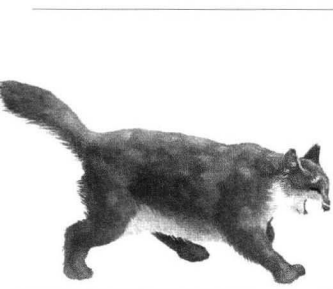
《고양이 학교》 전5권
 김진경 글·김재홍 그림 | 문학동네어린이 |
 각권 값 7,500원

놓으면 스스로 알아서 이야기를 짓고 뛰어논다는 작가의 말처럼, 《고양이 학교》는 어느새 5권으로 탈바꿈해 있었던 것이다.

8년 여에 걸쳐 각국의 신화를 공부해 온 저자의 의욕이, 두 세 권으로는 아우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플롯을 구상하고 환경친화적인 메시지와 동양의 사상을 담은 동안, 편집진들은 이 작품이 가진 환상성을 제대로 꿰뚫고 표현해 낼 삽화가를 찾아내야 했다. 특히 《고양이 학교》의 정점에 위치한 신화 세계와 환경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는 이가 필요했다.

그래서 포착된 사람이 바로 화가 김재홍이었다. 1980년대 저항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민중미술가로, 1990년대 들어서부터 환경에 대한 인간의 윤의의식과 생태학적 문제를 다룬 사회참여적인 작품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동강의 아이들》과 《숲 속에서》라는 그림책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묘사하며 어린이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었다.

역량 있는 삽화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편집자로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탄탄한 기본기는 물론 내용을 시각 이미지로 풀어내는 독해력이 남다른 삽화가는 편집자의 말 품과 발품을 덜어줄 뿐더러 한 수 위의 가르침을 베풀기도 한다. 김재홍이 바로 그런 이였다.



삽화가를 섭외하고 글 원고가 완성된 뒤 삽화를 발주, 입고된 삽화를 토대로 본문 편집디자인 및 표지 디자인 순으로 진행

된 작업 기간은 놀랍게도 평균 20여 일 정도였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양의 본문 그림이 완성된 것은 삽화가가 특유의 순발력을 발휘하여 밤낮으로 이 일에 매달려 주었기에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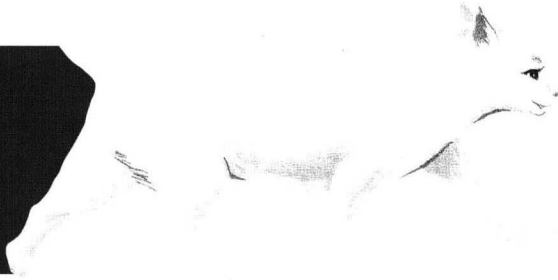
당시 삽화가의 작업실 한켠에는 《고양이 학교》 관련 자료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삽화가는 고양이의 생태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양이 관련 도서를 구하고, 또 직접 고양이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고양이의 종류와 생김새, 독특한 포즈 등을 다각도로 연구하며 스케치했다. 또한 앙코르와트, 민화民畵, 고분벽화, 생태환경 관련 도감, 중국과 서구의 각종 신화 관련 서적도 수집하여 내용에서 받은 시각 이미지를 구체화해 나갔다. 내용을 설명해 주는 평범한 삽화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내용을 보충해 주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타일로 그려달라는 편집부의 요구를 120퍼센트 소화해 준 것이다.

편집부에선 의견교환을 지속적으로 하되 작업과정에 시시콜콜 간섭하기보다는 화가의 상상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진행했다. 그만큼 삽화가의 역량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물은 작가와 편집자를 들뜨게 만들었다. 가령 2권 《마법의 선물》의 지구에서 사라져간 생물 종이냐 그들의 무덤이 즐비한 장면(54~55쪽, 61쪽)은 섬뜩할 만큼 사실적이어서 환경오염의 피해를 각성시키기에 족했고, 3권 《시작된 예언》에 등장하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이그드라실 그림(13쪽)과 뿔나무에 열 개의 해가 앉아 있는 부상수 그림(16~17쪽)은 보이지 않는 신화 속 이미지를 가시화해 상상의 폭을 극대화시켰다. 이들 원화原畵는 《고양이 학교》가 발간된 후에 일산의 한 어린이 서점의 요청으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에당초 본문 그림으로 생각한 것은 사실적인 펜화였

《고양이 학교》는 대형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열독하는 팬층이 두텁다.

신화나 팬타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독자들이 《고양이 학교》 마니아로 굳어지면서 그들의 입소문을 통해 독자층을 넓혀나가고 있다.



다. 그래서 1차 시안으로 펜 터치가 살아 있는 세밀화 1점을 받았다. 현재 1권 《수정동굴의 비밀》 표지그림과 동일한 풍경의 이 팬화는 1권 속표지 밑그림으로 사용했다. 다시 봐도 근사하지만 흑백 단도의 삽화는 《고양이 학교》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다시 고심 끝에 흑백의 단순한 이미지보다 컬러풀한 쪽이 내용과 맞는다고 판단, 현재의 삽화가 그려졌다.

표지는 책의 얼굴이며 책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다. 구매를 자극하는 1차 관문이기에 다분히 상업적인 요소를 떨 수밖에 없다. 책이 독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독자 성향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더불어 글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한 뒤 독자에게 예고해 주는 북디자인의 능력이 중요하다. 1권 《수정동굴의 비밀》은 고양이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다. 제목에 걸맞는 신비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다소 무섭다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택했다.

2권 《마법의 선물》은 고양이 학교에서 받는 특별수업의 한 장면이고, 3권 《시작된 예언》은 전설 속에서 홍수가 난 장면으로 고양이 얼굴을 크게 클로즈업시키고 주인공과 고양이가 만난 장면을 오버랩시켰다. 4권 《나는 그대 눈동자 속에 있으리》는 촛불을 든 용을 배경으로 주인공들이 올라타고 있는 불새를 내세웠고, 5권 《영혼의 산》은 고양이의 변신과 새로운 고양이의 탄생장면을 선택했다. 독자는 일반적으로 책을 읽고 난 뒤 표지와 함께 내용을 기억하곤 하는데, 표지만 봐도 고양이 학교의 줄거리를 순차적으로 알 수 있게끔 《고양이 학교》의 표지를 차례로 나열해 놓으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고심한 것이 제목 서체. 《고양이 학교》가 주는 분위기와 고양이가 썼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고양이가 발

톱으로 긁은 듯한 서체를 그려서 사용하려고 몇 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괴기스럽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보다 조금 완화된 서체를 택했다. 그래도 발톱으로 긁어서 글씨를 쓴 듯한 느낌은 살렸다.

《고양이 학교》는 대형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열독하는 팬층이 두텁다. 신화나 팬타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독자들이 《고양이 학교》 마니아로 굳어지면서 그들의 입소문을 통해 독자층을 넓혀나가고 있다. 그 반응은 《고양이 학교》 독서 감상문 모집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5권 《영혼의 산》 출간과 더불어 치른 이 행사에는 어린이 못지 않게 성인들의 참여도 활발했고, 그 중엔 신화적 상상력의 구조를 분석해 내려는 시도도 있었다. 얼마 전 부천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에서 저자를 초대해 어린이와 함께 떠나는 신화여행 교실을 열고 《고양이 학교》의 창작 배경과 과정, 그리고 신화 세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올해는 《고양이 학교》의 후속작, 《거울 전쟁》이 출간될 예정이다. 아무래도 ‘거울 전쟁’이 아니라 ‘편집 전쟁’이 될 것 같다. 전편보다 더 흥미진진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시길! ■

